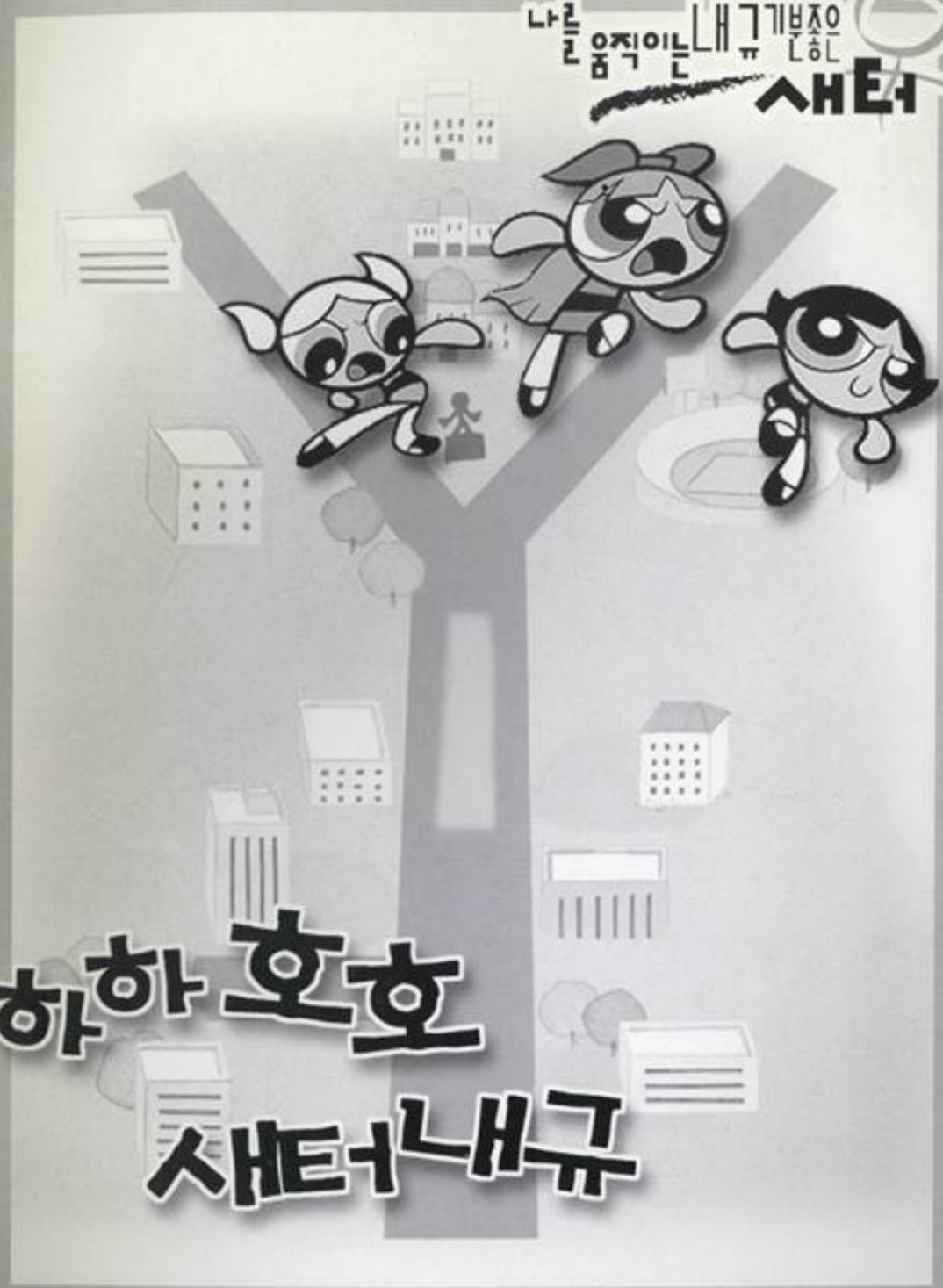
총여학생회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메일 ysfem@yonsei.ac.kr
전화 2123-3645 (구내 3645)

나를 움직이는 내규 기분좋은 새터

2002 새터 반성폭력 내규 기획단

참제한 이들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제14대 총여학생회
문대 여성주의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비욘드



나를 움직이는 내규 기분좋은 새터

하하 호호 새터내규

2002 새터 반성폭력 내규 기획단

참제한 이들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제14대 총여학생회
문대 여성주의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비욘드

나를 움직이는 내규기본중은 새터

Contents

4 1. 알쏭달쏭 내규세상

4 (1) 새터내규 이게 도대체 뭐에요?

6 (2) 반성폭력내규란...

8 (3) 후배는 어떻게? 선배는 이렇게!

10 새터에 대한 말 말 말

11 2. 벙글벙글 놀이세상

11 (1) 이런 놀이 다시 생각해봐요!

12 (2) 이런 놀이 어때요?

14 (3) 여자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16 3. 전격공개! 내규란 무엇인가!

16 (1) 반성폭력내규 전문

19 (2) 신고절차와 처리과정

알쏭달쏭 내규서상

엇, 새터내규? 이게 도대체 뭐에요?

새내기와 선배들이 처음으로 여러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새터...
새내기에게는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중 방문에 혹은 벽에 붙은 '새터내규'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새터내규'에 대하여 새내기에게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나아가서 새내기와 선배가 함께 '새터내규'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것의 진짜 의미를 실현할 수 있기를..하는 바램으로 한 가지 상황을 그려보고자 한다.
그럼 한 번 들어가볼까?

(문에 붙어있는 새터내규를 보며..)

새내기 __ 새터내규? 이게 뭘까?
엇, 선배님 선배님! *(똘망똘망한 눈으로..)* 도대체 이 새터내규라는게 뭐에요? 이게 여기 왜 붙어있는 거죠? (-_-a)(-_-a)

선배 __ 아~ 새터내규? ^_^ 그건 말이죠, 새터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규약이에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켜라!"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새터 중의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방지해 보기 위해 스스로 정한 자.치.규약이라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새내기 __ 새터 중 성폭력이라구요? 어머머 세상에...티비에서나 나오는 무시무시한 성폭력이 지금 이곳에서두 일어날 수 있단 말예요? 말두 안돼...
선배들 별루 안 무서워 보이던데..이게 왠일~??? @.@;

선배 __ 성폭력이라는 것은 꼭 강간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환경적인 폭력 등 우리가 3일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 한 성(性)이 다른 한 성(性)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불편해 하는 그 한 성이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낄 때 그건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새내기 __ 그럼 이 규약에 맞게만 행동해야 하는 건가요? 어기면 처벌이라도 받나요? 좀 신경쓰일 거 같은데...____;

선배 __ 물론 이걸 주욱 읽어보았을 때는 신경쓰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뜨!(-_-)(-_-)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새터라는 곳은 분명 나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닌, 처음 만난 학교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존중과 배려'를 필요로 하죠. 안 그래요?

새내기 __ 그렇죠...

선배 __ 이 '새터내규'도 어쩌면 그러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성 때문에 여성이, 그리고 여성 때문에 남성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입는다면, 근본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그건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처럼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존중과 배려'조차 결여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성폭력들이 발생해 왔고 결국 '새터내규'라는 것까지 제정하게 된 것이구요. 그러니 이 규약을 지키는 것을 신경쓰인다고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일 뿐인데...

새내기 __ *(매우 밝은 표정으로..)*정말!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말을 듣다 보니 결국,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만드느냐, 누군가 불편해하는 새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제가, 또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한 번 지내봐야겠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다 생각될 땐 서슴없이 얘기할래요.*(불끈!)* 그래도 되는 거죠? 그렇죠?

선배 __ 물론이죠. 가까운 선배에게 얘기해도 좋고, 학생회에 찾아가서 얘기해도 좋고, 밖에 있는 신고함에 넣어도 좋아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풀어나갈 때 길은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열리게 마련이지요.^^

새내기 __ 그래요! 우리 한 번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만들어봐요!^^

선배 __ 그럼 어디 한 번 시작해 볼까요?^^

새내기 __ 조~아요!!! ^___^

> *새터내규'도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때문이지 않을까요.*

알쏭달쏭 내규서상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뭔가요?

●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행사는 아마도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 새로운 선배들, 동기들과 만나 친해지고 대학생활의 면면들을 익히게 되죠. 한마디로 새터와 오티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첫인상의 자리'이며 4년 간의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새터 기간 역시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공동체 문화 속에서 성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폭력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유형으로 행해지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이나 행동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한 사람에게 성적인 측면에서의 불쾌감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하는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폭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건의 경중과 심각도를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소해보이는 말 한마디로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구분들이 피해자의 느낌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행해져 왔죠.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에는 피해자의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성폭력은 새터 기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새터에서는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기도 하고 촌극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 단순히 '재미있고 즐겁게' 또는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놀이나 농담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촌극 속에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 담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불편하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선배나 동기와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쩌나' 하는 이유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한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모두가 함께 얘기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성폭력에 대해 그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학생사회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존재함으로써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 새터 참여자들이 좀더 민감해질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새터에서의 성폭력을 어느 정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새터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터가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의 시작을 여는 문이듯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연세에서 성폭력의 뿌리를 뽑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어떤 한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모두가 함께 얘기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성폭력에 대해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이 새터 내규를 자율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 하나의 규제 혹은 제재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경우죠.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다같이 공유하며 새터 내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새터를 진정 원한다면 모두가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일테니까요.

후배는 어떻게? 선배는 이렇게!!

1)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면..어떻게 해야하죠?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하는 자린데...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만 더 키지는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살신성인의 정신을 이런 곳에서 굳이 발휘할 필요는 없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그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보세요. 아닌건 아닌 거잖아요?

2... 만약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주변 사람과 상의하거나 정해진 기관에 신고를 하세요. 새터 장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함을 통하거나, 새터 지킴이에게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총여학생회에 신고를 하셔도 돼요. 새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니까 돌아와서 ysfem@yonsei.ac.kr로 메일을 보내거나 2123-3645(구내 3645)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동성의 선배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세요.

3...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나의 친구도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선배의 농담이나 오버하면서 이루어지는 놀이, 촌극이 불편하거나 불쾌하다면 '함께' 문제제기 하세요. 내 친구가 싫다고 할 때 함께 의사표시를 해준다면 상황을 해결하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보기 싫은 상황이 계속되면 다 같이 쌩 까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2) 주변사람들, 특히 선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새내기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거나 후배에게 선배는 어려운 사람이니까요. 용기 있게 말을 한 경우 맞장구를 쳐줍시다.

만약 불편한 기색이 보인다면 선배가 먼저 문제제기를 합시다. 새터 기간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성폭력보다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더 많습니다. 촌극이나 공동체 놀이, 방 별로 이루어지는 뒷풀이 자리에서 '우리 과/반의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성폭력적 놀이들이 자행되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 선배들이 나서서 제재하고 분위기를 바꿔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겠죠?

2... 피해자가 자신이 느낀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사건이 신고된다면 우선 피해자를 안심시켜주세요. 그리고 피해자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주고, 피해자를 믿고 함께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유형이던 간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의 제일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임을 잊지 맙시다.

3... 많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절대 피해자의 탓이 아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줍시다. 대리인을 세워서 가해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4... 사건 해결의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야기해주세요. 특히 새내기의 경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터 내규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동감하는 제3자가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 신고할 수도 있겠죠. 신고함이나 새터 지킴이를 통해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에 신고하거나 ysfem@yonsei.ac.kr이나 전화 2123-3645(구내 3645)를 통해 총여학생회에 신고하세요.

어느 경우이든 간에, 사건이 신고가 되면 피해자 본인이나 신고자의 개인신상은 분명히 보호가 됨을 알려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할 부분입니다

새터에 대한 말말말

갈해야죠... 근데 너무 심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부드럽게 해야죠(99.남)

좋은 취지이긴하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수 있었으면 한다(98.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해야겠다(97.남)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98.남)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잘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00.여)

잘 생각이 안나... 미안~(01.여)

아~저런 일도 있구나.. 조심해야겠는걸...(01.여)

저런 비슷한 일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생각하기 싫어..(00.여)

저런건 용서해선 안돼(00.여)

자기가 다 조심하기 나름이야(복학생)

대학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흔적없이 없어져야하는 문제이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문제야(복학생)

이런 놀이 다시 생각해봐요!

FM

FM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대의 신고식과 흡사하죠? 큰 목소리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FM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몇 반이고, 몇 학번이고, 이름이 무엇인가 뿐이지요. 게다가 소개의 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것을 어길 경우 끝없이 다시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인상을 쓰면서 크다 못해 찢어지고 갈라지는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요?

'망가지는 모습' 이 재미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재미있다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로 FM을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마초맨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 중에 하나가 응원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즐겁게 즐기기에는 문제가 많은 응원곡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초맨' 인데요. 마초의 뜻은 알다시피 원뜻은 '남자다운 남자' 이지요. 여기서 남자다운이란 힘이 센, 즉 성적 능력이 뛰어난 남자를 일컫는 것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변강쇠(?)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마초는 남성우월주의자로 많이 쓰이고 있지요. 마초는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초맨 응원 중간에 들어가는 몸짓은 피스톤 운동을 표현하고 있구요.

'어머... 마초맨이 이런 뜻인지 몰랐어!' 라고 말만하면서 계속 모른 체 부르지 말고 의식 있는 대학생이 됩시다~

성적인 표현들

처음 만나는 어색한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는 이유로 많은 성적인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담패설과 같은 것에서부터 아카라카 섹스버전과 같은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성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 어때요?

●●●

새터에 선배도 많이 사귀고 동기들 하구도 얼른얼른 친해져야지! 다부진 결심을 하고 새터에 온 새내기. 그 이름만으로도 풋풋함이 느껴지는 새내기.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식상한 게임에 술이 첨가된 것 외에 다를 바 없는 놀이들, 아니면 밤새~도록 변강쇠의 현대판인 '마쵸맨'을 부르고 목이 쉬어라 외치는 아카라카. 새터에 오면 선배들과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동기들과도 좀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랬고 재작년에도 이랬다며 올해도 그렇게 놀아야 한다는 생각은 굳이 재미있는 새터, 재미없게 즐기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풋풋한 대학생의 자세이겠지요.

●●●

낯모르는 이와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청겨운 느낌의 스킨쉽은 쉽게 마음의 벽을 허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과반 별로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반 대항전으로 즐기기에 좋은 놀이로는 '손 풀기'나 '2인3각'을 응용한 놀이가 있지요. '손풀기'는 팀 구성원이 모두 손을 잡고 뒤엉킨 상태에서 푸는데 걸린 시간이 가장 적은 팀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손에 손잡고 학우들의 뜨겁고 축축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단체줄넘기'나 '2인 3각'을 응용해서 오래간만에 땀흘리며 뜨뜻한 정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나 '이름외우기'를 하면서 어떤 이름을 가진 친구가 어떤 양말을 신었는지, 무슨 색 머리를 하고 있는지 눈에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는 둥근 원을 만들어 바싹 붙어 앉아서 술래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리를 잽싸게 찾아야 하는 놀이입니다. 술래는 원 가운데에 서서 앉아있는 사람 중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양말 안신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그 순간에 양말을 안신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앉아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찾아 잽싸게 앉아야 합니다. 술래는 사람들이 일어난 그 틈에 같이 빈자리를 찾아 앉아야지요. 술래가 앉아버리는 바람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되는 게임입니다. 술마시는 것만이 새터에서의 추억은 아닐진대 매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도록 술을 마시는 것이 지금의 새터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개강하고나서 기억에 남는 것은 오로지 '원샷!' 밖에 없습니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요. 아직도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른다면 머리도 굴릴 겸 "태욱" "태욱, 호명" "태욱, 호명, 개상" "태욱, 호명, 개상, 주녕" ... 이름외우기를 해도 좋겠지요.

●●●

'이구동성'이나 '이니셜게임', '풍선터뜨리기', '림보게임' 같은 유치한 놀이도 막상 해보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서먹서먹하고 한 방에 모여 앉으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기. 식상한 자기소개나 해병대를 연상시키는 FM을 하면서 알아가기보다는 단순하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놀이로 새터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벙글벙글 놀이세상

여자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1 대학에 들어섰을 때 나를 처음 맞아 준 것은, 아카라카 구호와 원시림 가사가 빼꼼히 적힌 칠판이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새내기 맞이 기간 신촌 거리에는 응원이 울려퍼지고 단체석이 가능한 술집들은 예약이 가득차 있다. 응원과 아카라카 아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 맥주 광고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원샷하는 것도 재미를 주겠지만, 그 술자리가 선배 동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이제 막 출발하는 새내기들이 대학에서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2 계속되는 환영회 자리, 3월의 술자리는 늘상 다른 때보다 들뜨고 흥분되기 쉽다. 특히나, 새내기들은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도 마냥 즐겁고 신날 때이니, 그곳에 여자선배가 많이 없다는 사실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새내기들 중에는 여학우들이 이리도 많이 보이건만, 왜 분위기를 잡는 선배들은 남자 선배가 대부분일까. 좀 이상하지 않나? 우리의 놀이 문화가 분명 여학우들을 알게 모르게 배제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한 번 생각해 보길.

3 환영회와 오리엔테이션, 새터에서 오버가 빠지면 썰렁하다? 오버하지 않고도 재미있게 놀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오버' 때문에 과반 모임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들이 있으니 말이다.

4 여학우의 한마디는 천군만마보다 더 강하다!! 우리의 놀이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지만, 이런 논란의 자리에서 "왜, 나는 못 느끼겠는데?" 라는 여학우의 말한마디는 그 무엇보다도 현재의 놀이 문화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뒤집어 보면, 여학우들의 말한마디가 우리 놀이 문화에 틈을 내는 힘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막강한 힘을 어느 편에 실어줄건지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덜 방황하고 덜 힘들어하고 그리고..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이란 언제나 눈에도 인식 못할 아주 약간의 차이에서 돌아갈 수 없는 큰 차이를
불러오기도 하기에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새내기들에게 선배로서 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저 조금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소탈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나보다 좀 더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5 새내기 시절에는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렵다. 선배들에게 '찍힐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주저말고 이야기하라. 조심스럽게라도 입을 열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힘을 더해줄 지원군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 벌써 한 명있지 않나^^

6 3월에는 자기 돈내고 밥먹는게 아니라고 한다. '오빠'들이 사주니까. 물론 선배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과분위기를 주도하는 몇명의 '오빠'들이 아닌 다른 선배들과 접선을 시도해 보면, '오빠 새내기적에...'류의 무용담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

7 새터에서 언제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놀아라.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8 새내기 환영회, 개강파티, 대동제 그리고 연고전으로 이어지는 광란의 놀이 문화, 그것은 대학 문화의 전부도 아니고 대표하는 무엇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일 뿐, 주류로 보이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그 뒤에 응원 무리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는 여선배들이 있고,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이들도 있으며, 자신들만의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어느 자리여도 좋다. 당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대학 생활을 누리기를. 그 많던 여학우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곳에서 보이지 않을 뿐....

전격공개! 내규란 무엇인가!

새터 반성폭력 내규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O.T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6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짠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탁탁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뿜으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②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곁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3. 의무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1) 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2) 신고함에 제보자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의 논의테이블로 가져오지 않는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1) 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3인, 최대6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10. 징계내용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위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절차와 처리과정 중요 check!!!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수련회 장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쪽지에 적어서 넣어두면 총여학생회 혹은 단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사건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터 지킴이에게 신고할 수도 있구요. 혹은 총여학생회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ysfem@yonsei.ac.kr로 메일을 보내거나 2123-3645(구내 3645)로 전화를 하세요. 새터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했다면 학교에 돌아와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기간에는 시효가 없으니까요. 좀 늦었다 생각되더라도 주저말고 신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과반 학생회장이나 가까운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새터 기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을거에요.